

NEWS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무안 ‘최우수’·해남 ‘우수’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의 어촌·어항 재생사업 관리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무안군이 최우수상, 해남군이 우수상에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이뤄졌다.

무안군은 ‘월두항 어촌뉴딜300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을, 해남군은 ‘남성항 어촌뉴딜300사업’ 등 7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평가위원회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무안군은 최우수상과 상금 200만 원, 해남군은 우수상과 상금 100만 원을 각각 받게 됐다.

박태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이번 성과는 어촌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관리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도, 기상이변 대비 안전 강화

1930억 들어 위험요소 점검

전남도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해위험 지역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는 올해 총 1930억원을 들여 128개 지구에 대한 재해위험 해소에 나선다.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47지구 (602억원), 풍수해생활권 정비 16지구 (843억원), 급경사지 정비 40지구 (344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25지구 (141억원), 4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이 가운데 올해 신규 사업은 54개 지구로 자연재해 취약지역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합평 염단천, 함평천, 영암 개신지구 등 인명피해 우려가 큰 지구는 전남도에서 직접 사업을 발주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상시 지도·점검 활동도 펼친다.

이와 함께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은 신규로 4지구가 확대돼 인명피해 우려 3대 분야인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중심으로 피해 저감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 美 상호관세 공세 대응 전략적 행보 눈길

애틀랜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 전남관 운영

13개 중기, 식품·바이오·뷰티·헬스케어 제품 전시

전남도가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라는 통상 리스크 앞에서도 수출 중소기업에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적 행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일 대외무역 조치로 ‘상호관세 (Mutual Tariffs)’ 정책을 발표하며, 한국을 포함한 일부 주요 수출국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는 ‘자국 제품에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새로운 글로벌 통상 질서의 서막을 알리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후 미국 정부는 9일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 여지를 확보하고, 미국 산업계의 반응을 반영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통상위기 속에서 협상과 시장 확대를 위한 ‘골든타임’이 주어진 셈이다.

전남도는 이를 실질적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17일(현지시간)부터 열린 ‘2025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WKBC)’에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참가하는 등 현장에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개회식은 이날 개사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재외동포청장, 미국 주정부 고위 인사, 미주한상총연 관계자, 세계한인 경제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번 대회를 미국시장 전략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13개 유망 중소기업을 현지에 파견해 ‘전남관’을 운영했다. 참가 기업은 푸드파파(곡성), 해청정(완도), 남도소반(목포), 현대푸드시스템(장성), 엔파케이(담양) 등 미국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포함됐다.

식품·바이오·뷰티·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 수출기업은 직접 제품을 전시하고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협약 체결 등을 통해 미국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



전남도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17일(현지시간)부터 열린 ‘2025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WKBC)’에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참가했다.

진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 화순의 ㈜디엑스엠은 80만 달러 규모의 염색제 수출 업무협약(MOU)을 하는 성과를 올렸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전남도는 이번 사태를 통상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실질적 교두보 확보에 나섰다”며 “지역 기업

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일시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으나, 동시에 수출시장 다변화와 품질 중심 전략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도는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세계무대에서 지

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민관 협업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또 18일 스타트업 피칭 & VC 투자포럼에서 지역 기업 4개사와 함께 글로벌 벤처투자자와 직접 연결하는 등 미국시장 맞춤형 기술·제품 홍보와 투자 유치 기회로 적극 활용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지원 ‘민간자문단’ 운영

운항조종·정비 등 전문가, 유가족 질의 등에 정보 제공

국토교통부는 12·29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조사에 대한 유가족 이해를 돕기 위해 21일부터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

자문단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구성되는 지원·추보위원

회 소속으로 설치된다. 또 유가족협의회 의견을 반영해 운항조종·정비·관제 등 총 8개 분야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진행 중 발표되는 조사내용에 대한 자문 지원을 유가족들이 지속해 요청하는 상황을 고려해 특별법 시행 전 선제적으로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사고조사 절차·내용에 대한 강

의 및 포럼, 설명자료 제작·배포 등을 통해 유가족들의 이해를 돕고, 요청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한다.

아울러 브리핑, 보고서 등 조사 중간 결과에 대해 유가족들의 질의 사항에 답변하고, 항철위 최종 조사 결과 발표 후 해설서 발간도 추진한다.

발간 예정인 해설서는 국내 최초의 항공사고 조사 결과 해설서로, 유가족들의 질의사항과 사고조사와 관련된 정책 제언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노후 파손 위험’ 광주도심 교량 이음새 교체

노후돼 파손 위험이 있는 광주 지역 일부 교량의 이음새(이음장치)가 교체된다.

광주시는 오는 23일까지 제2순환도로 일부 교량 보수 공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교량은 제2순환도로 3구간 용산IC교와 소태고교교로, 노후한 신축 이음장치 교체 작업이 이뤄진다.

공사가 진행되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19일 소태고교교 동광주·효덕방향, 20일 용산IC교 양방향, 21일 소태고교교 남광주 방향, 22일은 소태고교교 순환도로 진입방향 통행이 각각 통제된다.

지난해 11월 이음장치가 파손돼 응급보수가 이뤄진 어등대교는 올해 초 운수

IC 방향 이음장치 교체가 완료됐다.

시는 반대쪽 광주시정 방향도 올해 하반기까지 교체를 완료할 예정이다.

광산구 신촌동, 우산동과 서구 벽진동을 연결하는 국락교도 올해 하반기 이음장치 교체 공사가 진행된다.

해당 교량은 교량 사이를 잇는 구조물인 이음장치가 설치된 지 10~20년 지나 노후화돼 파손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기 기자 sky@

“관세협상, 국론 수렴해 새 정부가 매듭을”

정진욱 “과도기 내각, 선부른 타결은 무책임”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사진)은 20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의 관세협상과 관련해 “실질적인 협상과 타결은 정당성과 책임을 갖춘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관세 협상을 결정할 권한까지는 없는 한덕수 총리가 나서는 것은 또 다른 권한남용”이라며 “40일 남짓 과도기 내각이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익을 도박판에 올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내란공범 최상목 부총리가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함께 이번주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와의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졸속 협상을 예고한 것이며, 개인 치적을 위해 국익을 내면지는 행태”라며 “지금은 미국 측 입장을 면밀히 파악하는 ‘기초 진단’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국이 협상에 선부르게 나서는 것은 서두르는 것은 미국이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자국에 대한 경제



안보 의존성이 높은 국가들을 ‘최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한 다음 이들 국가를 통상 협상 성과의 시범 사례로 활용하려는 전략의 희생

양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또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국익을 위태롭게 하며 졸속 협상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미국 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국회·정당·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론을 정리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헌정질서에도 부합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겐 협상타결권이 없으며 현 권한대행 체제는 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정치적 책임조차 존재하지 않는 한계가 분명한 상태”라며 “이런 정부가 관세 협상을 타결한다면 제2의 외교·통상 참사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성오 기자 sole235@gwangnam.co.kr

BAROYEON

‘만남’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만남, 당신에 이상형!

바로연

에서 인연을 만나다.

초혼·새혼 결혼전문업체 바로緣

1644-5432/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광주·서구·국내·09·0905호